

강기정 시장, 미래 공직 인재와 현장 소통

전남대 행정학과 학생 40여명, 시청서 현장 연계 진로탐색 행정서비스 공유... 진로 조언·멘토링 통해 공직이해도 높여 강기정 시장 "행정은 시민의 삶 바꾸는 가장 가까운 현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1일 시청을 방문한 미래 공직 인재들과 소통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시청 1층 시민홀에서 '행정현장 탐방 및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학생 40여명을 만나 '행정현장에서 배우는 공직자의 역할과 현장소통의 중요성'을 주제로 행정서비스의 중요성과 진로를 격려하는 소통의 장을 가졌다.

강 시장은 이들에게 "행정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가장 가까운 현장"이라며 "현장과 정책을 잇는 행정의 역할과 책임을 깊이 이해하고, 지역의 미래를 이끌 공직 인재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시장은 이어 "행정은 시민에게 신뢰받을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오늘의 소통이 행정의 현실과 필요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남대학교 행정학과가 매년 운영하는 현장연계 교육과정의 하나로, 학생들이 실제 행정조직을 체험하고 지방행정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멘토·멘티 간담회는 시청에서 근무 중인 전남대 행정학과 출신 공무원들이 시험준비 과정, 조직문화, 주요 업무 등을 소개하며 후배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전했다.

행사에 참여한 전남대 행정학과 4학년 유민상 학생은 "행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는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며 "시



장남과 선배 공무원들의 조언이 진로 선택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전남대학교 행정학과는 매년 11월 주요 행정기관을 탐방하며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2023년 국무조정실, 2024년 전라남도에 이어 올해 광

주광역시를 방문해 실제 행정 사례를 접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지역 대학들과 현장소통을 지속 추진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승원 기자



북구 김장 나눔 행사 다음 달까지 이어져

김장 김치 2만여 포기 노인·장애인 등 돌봄 이웃에 전달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다가오는 연말을 맞아 돌봄 이웃들에게 김치로 온정을 전한다.

23일 북구에 따르면 다음 달 17일까지 27개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부녀회 등이 참여하는 김장 나눔 행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과 주민 화합 증진을 위해 각 동 자생 단체의 주도로 마련됐으며 올해는 총 2만여 포기의 김치가 홀몸 어르신·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돌봄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북구 모든 동이 참여하는 행사인 만큼 참여 주민도 다양하다. 오는 26일 우산동 김장 나눔 행사에는 광주문화신협, 서방새마을금고 등 지역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참여해 나눔의 손길을 보낸다. /송현근 기자

다음 달 3일 운암3동에서는 이주여성 10여 명과 함께 김치를 담그며 이를 뒤인 12월 5일 운암2동 행사에는 금호중앙중 학생과 동운어린이집 아동 20여 명이 참여한다.

기부자에 대한 감사 행사도 열린다. 다음 달 5일 '온(溫)마음 후원자의 날 행사'가 중흥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되며 김장 나눔 행사에 후원한 기부자 중 3명을 선정해 감사패를 전달한다.

북구는 완성된 김치를 각 가정에 전달하며 돌봄 이웃들의 건강 상태와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27개 동 이외에도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원봉사센터 등 다수의 유관 단체에서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해 이웃들에게 따스한 마음을 전달할 예정이다. /송현근 기자

전라남도는 2028 완도국제해조류산업박람회 개최 계획서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해조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박람회 추진 체계에 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2028 완도국제해조류산업박람회는 2028년 4월 21일부터 5월 14일까지 완도군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케이-해조류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세계시장 선점과 수출 경쟁력 확보를 통한 글로벌 도약을 핵심 목표로 추진된다.

박람회를 통해 전남도는 국내 해조류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해

전남도, 2028 완도국제해조류산업박람회 계획서 제출

해조류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위한 박람회 추진체계 시동

양바이오 산업 생태계 구축을 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박람회는 '해조류, 생명의 기원'에서 인류의 미래로 주제로 운영되며 박람회 기간 ▲해조류 이해관 ▲생태관 ▲양식관 ▲미래관 ▲로컬관 ▲특별기획관 ▲체험관 등 7개 전시관이 마련된다. 또한 국제 심포지엄, 수출 상담회,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 체험 등 다양한 연계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2026년 7월 국제행사 승인을 목표로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 심의 준비와 박람회조직위원회 구성 등 체계적 절차 이행을 통해 박람회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20개국에서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

되며, 260명 이상의 고용 창출과 4천800억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나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정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박람회가 전남 케이-해조류의 세계시장 선점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해조류는 바이오 소재, 블루카본 등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국제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해조류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염선호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 고액 기부자 모인인 서구아너스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뜻깊은 수학여행을 선물했다. 서구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 20명이 서구아너스의 후원을 받아 광주에서 문화향유와 진로탐색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구아너스는 이번 사업을 위해 후원금 1500만원을 지원했다.

학생들은 2박3일간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등 우리나라 대표 문화유산을 탐방

서구아너스, 학교 밖 청소년에 '수학여행' 선물

2박3일 경주서 문화향유·진로모색... 1500만원 지원

하고 역사적 의미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공예 직업 체험, 대학생 멘토와의 진로 상담, 조별 자율활동, 체험일지 작성 및 발표 등을 통해 자기 이해와 협업 능력을 키우는 기회도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 수

학여행은 꿈도 못 꿨는데 이번 여행이 너무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이었다"며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나의 꿈과 삶에 대해 진지하게 돌아보고 진로를 보다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기강 서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

이 편견의 벽을 넘어 당당하게 꿈을 펼치고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자존감과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실천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아너스는 출범 1년 만에 회원 103명이 가입했으며 35억여 원의 후원금을 모아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박석우 기자

'빈집, 정원이 되다'... 빈집 순환정원 조성사업 완료

서석동 5-4번지 광주 최초 직권철거, 초화류·수목 등 식재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는 서석동 일원에 장기간 방치돼 안전 우려가 컸던 빈집을 철거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정원으로 재탄생시킨 '빈집 순환정원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20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석동 5-4번지 빈집을 광주 최초로 직권 철거한 뒤, 민간기업인 SM스틸(건설부문)의 사회공헌으로 주민 중심의 소규모 정원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완료식에는 임택 구청장, 문선화 동구의회 의장, 성낙원 SM스틸(건설부문) 대표, 주민자치회, 주민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새롭게 조성된 정원을 둘러보며 변화된 환경을 확인했다. 행사는 경과보고, 현장 관람,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향후 주민 참여형 정원 관리 방향도 안내됐다.

이번 조성 사업을 통해 방치된 빈집으

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마을 경관을 개선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크게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뒀으며,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구민 정원사'가 참여하는 자율 관리 체계를 도입해 지속 가능한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오랫동안 주민 불편과 불안 요소였던 빈집이 열린 생활정원으로 거듭나 지역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지난 9월 서석동 5-4번지, 지산동 408-3번지, 계림동 521-23번지 등 빈집 3곳을 광주 최초로 직권 철거했으며, 향후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정비 대상지를 발굴하고 민간기업·지역사회와 협력한 빈집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오철수 기자

1면에서 이어짐

특히 산책길 곳곳에 의자와 세족장, 운동기구, 파고라 등을 배치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초등학생과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시민들을 위한 발물놀이터(물놀이장), 모험놀이장, 피크닉장 등도 설치해 다양한 연령과 세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3층 규모의 주차복합건물을 건립해 1~2층은 총 114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3층은 문화 강좌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특히 이들 시설은 지역 주민과 광주시, 자치구, 시공사가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열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강기정 시장은 "마곡근린공원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여유를 위한 명소가 될 것"이라며 "광주시가 추진 중인 나머지 장

기미집행 도시공원들도 순차적으로 완료되면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이 2배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시민들이 푸르른 도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광훈 기자

